

한국 소장 『金臺全傳』의 판본과 서사 연구*

김 명 신
(한양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金臺全傳』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의 판본 상황을 살펴보고 작품의 서사 양식을 분석하여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했다. 『金臺全傳』은 淸나라 말기에 창작된 작자미상의 俠義小說로 가장 오래된 판본이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1881년에 출판된 石印本이다. 우리나라 국민대학교에 소장된 희귀판본과 비교해보면 판형과 문자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작품의 서사 구조는 金臺의 유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의 등장, 결연, 시련, 입궁, 귀환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김대의 영웅적 행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金臺는 소년영웅으로 기녀와 연분을 맺는 파격적인 애정 형태를 보인다. 그는 의리를 중시하여 친구들과 함께 유랑하다가 악인을 죽이게 되지만 결국 宋나라를 위해 세 차례나 공을 세움으로써 安邦定國王으로 봉해진다.

金臺와 더불어 활약한 500명의 영웅 유형은 指揮者型, 智略家型, 行動家型, 直觀型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金山에서 의형제를 맺은 이후 국난 극복을 위해 모인 인물들이며, 거칠고 호방한 성격을 가졌지만 결국 王則과 반란군을 제거하는 일등공신들이 된다.

金臺와 적대한 악인들은 그의 영웅성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이다. 김대는 악인들과 사소한 개인적 갈등으로부터 국난에 이르기까지 점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2278)

양상을 보인다.

주제어 : 김대전전, 김대, 판본, 영웅, 서사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한국소장 희귀본 중국 俠義公案小說의 판본과 서사양식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金臺全傳』은 현재 국민대에 소장되어 있는데, 희귀본 清代 俠義小說 중의 하나이다. 작자를 알 수 없고 전문 연구자나 일반 사람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說唱 형식이나 서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애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특히, 국가적인 고난을 배경으로 주인공 김대의 유랑과 무예시합 등은 대중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악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가치관, 의형제를 맺는 의식도 재미를 배가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金臺는 영웅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가 지향하는 바와 실현방식을 살펴보면 민생을 구제하고 국가적 고난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²⁾ 그가 500명의 영웅을 모아들이는 방식은 의형제를 맺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식은 『三國志演義』의 桃源結義에서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혼란한 국가를 안정시키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결의형제를 통해 다양한 영웅의 형상들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영웅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판본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金臺와 500명 영웅의 유형을 분류하고³⁾ 그에 따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영웅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참조하되,⁴⁾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국난 극복의 영웅

1) 馬國星, 「浪遊、難邦與打擂—試論『金臺全傳』中的三個母題」, 遼寧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5. 1쪽.

2) 安圻洙, 「영웅소설의 지향가치와 실현방식에 대한 연구」, 『어문론집』 30, 2002. 12. 129-157쪽.

3)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水滸傳』에 등장한 108명의 영웅과도 비슷한 면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유형적인 비교 분석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을 중심으로 유형화 시키고자 한다. 또한 영웅 김대를 돋보이기 위해 배치된 적대적인 악인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으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도 탐구를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작품의 서사구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II. 『金臺全傳』의 판본

『金臺全傳』의 판본은 현재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른 판본은 1895년 上海 中西書局 石印本이라 알려져 있고 현재 復旦大學 도서관에 영인본이 남아 있다.⁵⁾ 그런데 이보다 이른 판본이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中西書局 판본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光緒 7년(1881)에 출판되었으므로 새롭게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최근 『김대전전』의 출판본은 첫째, 曹光甫 교점,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영인한 1991년 『古本小說集成』 수록본, 둘째, 朱邦薇 等 교점, 百花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1995년 『中國近代小說大系』 수록본, 셋째, 朱俊芳 교점, 春風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1997년⁶⁾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 수록본이 있다.⁷⁾ 이처럼 전집 형태로 출판하고 있는 것은 희소성이 있거나 독자의 수요 가능성을 예측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비교적 간단한 분류법은 체제개혁형, 예정성취형, 능력분위형, 인륜수호형이라는 영웅 유형이다. 대상작품은 장편인데다가 집단 영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14-78쪽 참조.

5) 佚名, 『金臺全傳』, 春風文藝出版社, 1997. 서문, 馬國星, 전개논문, 2, 3쪽 참조.

6) 春風文藝出版社의 『金臺全傳』은 2004년이 아니라 1997년에 처음 출판했는데 王立·馬國星의 논문에 잘못 기록되어 있어 교정한다.

7) 현재 통행하는 판본으로 전집에 속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목적으로 출간된 작품이다. 王立, 「金台全傳打播母題、狂歡化色彩及佛經來源」,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 3, 28. 1쪽 참조.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의 石印本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국민대학교 도서관이 유일하다.

국민대 소장 판본은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희귀 판본으로 제목이 ‘繡像金台全傳’이라 되어 있고, 판형은 8.6×14.8cm⁸⁾이고 내용은 18줄 43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6권 60회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출판은 민국 2년(1913) 5월 上海 鍊石齋書局에서 발행한 것으로 6장의 삽화가 제1권에만 들어가 있는데, 주요인물부터 악인형상까지 그려져 있다.

첫 번째 그림은 何永兒, 張錡, 金臺와 모습이 함께 있고 두 번째 그림은 楊元帥, 蘇小妹, 聖女가 있고, 세 번째 그림은 鄭千, 寧僧, 蘇鳳이 있으며 네 번째 그림은 楊豹, 澹台惠, 柴王이 있고 다섯 번째 그림은 左跛, 蛋僧, 張欒이 있으며 여섯 번째 그림은 石猴, 王則이 있다.



그림 1 표지



그림 2 목차



그림 3 주요인물



그림 4 제1회

南京圖書館 소장 판본 중에서 희귀 판각본인 清代 판본은 제목이 ‘金臺全傳’이라 되어 있고 판형은 17.9×12cm이고 내용은 12줄 24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12권 60회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출판은 光緒 7년(1881) 墨海堂에서 발행한 것으로 2장의 삽화가 제1권에 있는데, 金臺와 王則의 그림만 있다.

8) 국민대 도서관 소장정보에는 판식이 15×8.8cm이라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보니 약간의 차이가 났다. 보관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서적의 판형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 표지



그림 6 서문



그림 7 목차



그림 8 金臺

이외에, 희귀본은 아니지만 上海 沈鶴記書局에서 民國 14년(1925)에 발행한 石印本이 우리나라 판본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6권 60회로 판식이 20.1×13.2cm이고 내용은 20줄 42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그림은 8장으로 국민대 판본보다 2장이 더 있으나 서문은 없다.



그림 9 上海本 표지



그림 10 上海本 그림



그림 11 上海本 제1회



그림 12 上海本 목차

국민대 소장본과 남경대 소장본의 작품 내용을 살펴보니 약간의 차이점이 드러났다. 국민대 소장본은 中西書局本을 저본으로 한 春風文藝出版社本과 비교해서 문자와 내용이 동일했으나 남경대 소장본은 제1회는 7言의 자구를 포함하여 鼓詞를 모방한 흔적이 있었고 다른 나머지 회에는 없었으며, 미묘하게 다른 글자를 쓰기도 했다. 예를 들면 국민대 소장본에는 ‘上回書中’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경대 소장본에는 ‘上卷書中’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소장본 모두 바뀐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일치했다. 이로 보아 중서서국의 판본을 저본으로 한 서적들이 중국 내에도 유통되었고 널리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겠다.⁹⁾ 국민대 소장본과 남경대 소장본의

9) 판본의 유통은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관, 사신 등을 통해 수입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朝鮮 시대에는 冊僮들이 많이 활동하여 다양한 서적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통되었다. 얼마 전 책체에 관련된 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20부작, 2015. 9. 10 중영)가 방영되어 일반인들에게도 그들의 존재가 알려졌다고 하겠다. 이종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1-39쪽 참조.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所藏番號	文字	分類
繡像金臺全傳	上海, 石齋書局, 民國2年(1913)	6卷6冊1匣, 中國石印本, 有圖, 14.8×8.6cm 18줄 43자 내외	表題: 繡像金臺 全傳	國民大學校 [고]823.6 수02	白話文, 7言聯目 없음	俠義小說
金臺全傳	墨海堂, 光緒 7년(1881)	12卷60回2冊, 中國石印本, 有圖, 17.9×12cm 12줄 24자 내외	表題: 金臺全傳	南京圖書館 GJ/26349	白話文, 7言聯目 포함	俠義小說
繡像金臺全傳	上海, 沈鶴記書局, 民國 14년(1925)	6卷60回2冊, 中國石印本, 有圖, 20.1×13.2cm 20줄 42자 내외	表題: 繡像金臺 全傳	南京圖書館 GJ/26506	白話文, 7言聯目 없음	俠義小說

Ⅲ. 『金臺全傳』의 서사구조

『金臺全傳』은 話本小說, 俠義公案小說, 英雄小說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작품의 서사는 金臺라는 영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¹⁰⁾ 작품의 내적인 의미구조로 보면 忠奸 투쟁, 善惡 대립 등으로 탐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분석방식은 다른 고전소설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이 작품은 영웅소설적인 경향을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영웅의 일대기 형식으로도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김대의 영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영웅소설이지만 여우 귀신과 蛋僧의 등장함으로 인해 환상적 효과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영웅 김대의 행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김대의 등장, 김대의 결연, 김대의 시련, 김대의 입공, 김대의 귀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 기본적으로 金臺의 유량이 작품의 구성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가 떠돌아다니게 되면서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하며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서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馬國星, 「遊, 難邦與打擂」, 遼寧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5. 18쪽 참조.

1. 金臺의 登場

『金臺全傳』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영웅은 바로 金臺이다. 일반 영웅소설과는 달리 그는 비범한 출생부터 묘사되지 않고 있으며, 어린 나이이지만 벌써 영웅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을 보기로 하겠다.

貝州에 金臺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금년에 나이가 16세였다.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노모는 아직 건강했으며 누나는 이미 결혼했다. 그는 집안에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었다. 다른 가업이 없었기 때문에 관아의 포졸이 되어 王則과 동료로서 일을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김대는 비록 젊었지만 착실하고 의협심을 지녔고 사람들마다 그가 대담하고 힘이 세면서 어릴 때부터 사부를 모시고 여러 가지 권법을 배웠음을 알고 있었다. 남이 그를 꺼려하지 않으면 그도 꺼리지 않았지만 남이 그를 속이면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혈기왕성하고 의협심을 가진 대장부라서 불공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패주곤 했다. 그래서 천하의 영웅과 호한들이 그를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貝州有一個少年, 名叫金臺, 今年一十六歲, 父親早故, 老母尚健, 一個同胞姊姊, 已經嫁出的了. 他在家中侍奉母親. 只因沒有別的行業, 故而在衙門中充了一名馬快, 與王則搭夥辦事, 這也不在話下. 那金臺雖只年輕, 到著實有些俠氣, 人人知他是膽壯力大的, 從小拜從一個師父, 學得諸般拳法. 倘別人不惹他, 他也不惹人. 倘別人欺他, 他也不肯饒人的. 好一個昂昂俠氣沖霄漢, 慣打人間抱不平的人. 天下的英雄好漢, 莫不慕名他的. 제5회)

이처럼 金臺는 나이가 어린 데도 불구하고 의협심이 대단했고 천하의 영웅과 호한들이 이미 흠모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소년영웅¹¹⁾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11) 소년영웅은 중국에서 일종의 少俠이라는 명칭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三俠五義』에서도 소협 艾虎가 등장하는데, 그는 삼협과 오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따름이지 金臺처럼 작품의 전반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김명신, 「낙선재본 『충렬협의견』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1-22쪽 참조.

2. 金臺의 結緣

金臺는 미리 약혼되어 있는 처자가 없었다가 張其, 鄭千과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蘭花院의 기녀 蘇小妹를 만나게 된다. 김대는 본래 기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리따운 소소매를 보자마자 귀신에 홀린 것 같았고, 소소매도 그를 보자마자 정신이 나간 듯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한눈에 반하여 결국 혼인을 결정하게 된다. 이들의 결연은 중매자도 없었고 예물도 없었으며, 그야말로 일반적인 연애결혼과 다른없는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¹²⁾ 다음은 金臺와 蘇小妹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오로지 金臺는 자세히 쳐다보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貌多花는 劉小妹만 못하고 劉小妹는 蘇小妹만 못하구나.’ 김대는 기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지금 이렇게 달과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니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다. 한 쌍의 아름다운 눈으로 維楊의 蘇小妹를 바라보았고 蘇小妹도 김대를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정신이 혼미하고 뼈마디가 모두 노곤해졌다.

(獨有金臺仔細看去, 口中不說, 心想道: “貌多花不及劉小妹, 劉小妹不及蘇小妹.” 那金臺方才說不愛嫖妓, 此刻見了這班月貌花容, 便著了魔了. 一雙媚眼看見那維楊蘇小妹, 那維楊小妹也把金臺細細一看, 便神魂飄宕, 骨頭多酥了. 제8회)

사랑에 빠진 남녀는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金臺는 蘇小妹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들은 며칠 되기도 전에 미래를 약속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결연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김대가 澹台豹를 때려 죽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바람에 결국 소소매는 김대의 고향 貝州로 가게 되고 김대는

12) 중국의 전통 결혼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다. 예교를 중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1. 納采 2. 問名 3. 納吉 4. 納徵 5. 請期 6. 親迎 등의 절차가 통해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이외는 달리 金臺는 파격적인 형태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김대와 蘇小妹는 ‘門當戶對’라는 격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옛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집안이 엇비슷하지 않으면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宋나라 때는 예교를 매우 중시했던 시기였지만 시대 배경이 송나라일 따름이지 창작 시기는 清代이므로 이러한 격식 파괴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을 떠돌게 된다. 이후로 김대가 소소매를 그리워하는 감정은 거의 드러나지 않다가 제24회를 살펴보면 모친과 아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다녀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는 중국 고대 俠義人物의 성격과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¹³⁾

3. 金臺의 試鍊

金臺는 친구 張其와 鄭千을 만나면서 그의 행로가 뒤엎기기 시작한다.¹⁴⁾ 김대의 부친과 장기의 부친은 일찍이 의형제를 맺었고, 김대는 장기와 좋은 친구였다. 김대는 관아에 속해 있는 포졸이기 때문에 청렴한 관리 沈太爺 관선의 재물을 털은 장기와 정천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김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蘭花院에 갔다가 태사 澹台惠의 아들 澹台豹를 만나게 된다. 담태표는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악행을 자행하며 부녀자를 간음하고 남의 아내를 강탈하곤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담태표가 김대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蘭花院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다가 김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다음은 김대가 담태표를 상대하는 장면이다.

澹台豹가 말했다. “金臺야, 날도적야, 손을 놓는 게 좋을 거다.” 김대가 말했다. “너에게 물어보자. 지금 이후로 이곳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담태표가 말했다. “내 구역인데, 어찌서 안 온다고 말하겠느냐!”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빨리 아가씨들 세 명을 잡아서 돌아가라. 아이구, 아파 죽겠다…” 김대가 결겉 웃으며 말했다. “이 개자식이 또 지껄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너의 목숨을 거둬서 만민의 근심을 제거하겠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 왼쪽 다리를 들고 마치 개를 잡는 것처럼

- 13) 중국 고대의 협의인물은 대개 애정에는 무심하고 남을 돕는 의협심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예를 들면 荊軻는 미인의 아름다운 손을 예찬했지만 결코 미인과 애정을 나누지 않았다. 그는 미인을 단지 아름다운 사물과 똑같이 취급했을 따름이다. 김명신, 『俠義愛情小説의 淵源과 範疇』, 『中國語文論叢』 제14집, 1998. 6. 125-146쪽 참조.
- 14) 金臺가 관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친구들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면은 『水滸傳』 108명의 好漢들과도 유사하다. 이 점은 忠과 義가 충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가의 고난이 발발하자 김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금방 해결되고 있다.

하면서 소리쳤다. “가거라!” 뜰 앞으로 던지니 담태표의 두정골이 부딪혀 부서지며 뇌수가 흘러나오더니 순식간에 죽었다.

(澹台豹道: “金臺, 你的野賊, 放了手的好.” 金臺道: “俺且問你, 自今以後, 這個地方來也不來?” 澹台豹道: “吾大爺的地方, 那說勿來!” 便高聲喊道: “你們快捉這三個小娘回去. 啊唷, 好痛!…” 金臺呵呵道: “這狗頭還要嚙蘇, 俺今就來結果你的性命, 除了萬民的大患!” 一只手揪住胸口, 一只手拎著左腿, 像捉狗一般喝聲: “去了罷!” 對著庭前一撩, 但見澹台豹的天靈蓋撞得粉碎, 腦漿流出, 一命嗚呼. 제10회)

이처럼 金臺는 잔혹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에게 ‘털 없는 큰 벌레(無毛大蟲)’라는 별명을 가진 권력자의 아들 澹台豹를 만민의 근심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단숨에 죽여 버린다. 이로 인해 김대는 명성을 얻게 되지만 사사로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관부에 쫓기는 몸이 된 것이다.¹⁵⁾

4. 金臺의立功

金臺는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다. 첫 번째는 돌원승이를 격파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日本에서 보낸 무사 郝龍을 격파한 일이며, 세 번째는 王則의 반란을 평정한 것이다. 사실상 김대는 무예시합을 하면서 전국을 유랑하기 이전에도 영웅이라 회자되고 있었지만 澹台豹를 죽임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다. 게다가 조정에서 보낸 관병들이 그를 두 번이나 놓쳤기 때문에도 이름을 날리게 된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김대가 관병에게 두 번이나 벗어나게 된 것이 악한 무리들의 도움이었다는 점이다. 바로 여우귀신 聖姑姑와 張鸞이 도술을 부려 그를 관병의 포승줄로부터 구출해 준 것이었다.

金臺가 원승이를 격파하기 이전에 벌써 두 사람의 희생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五軍都督 樊仲이 원승이를 상대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눈을 파먹히고 만다. 그 다음에는 八百禁軍의 교관 高桀이 조금 더 버티기는 하지만 역시

15) 중국 俠義人物은 정의로운 인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가끔 法制를 초월한 행위를 드러내기도 하여 그에 대한 정의와 불의를 재단하기 힘든 양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협의인물은 자신만의 정의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영웅을 희구하는 민중의 심리에 부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대중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된다.

왼쪽 눈을 파먹히고 나가떨어진다. 천자는 문무대신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고 하니 楊元帥가 범법자로 되어 있는 김대의 죄를 사면하기를 청하면서 그가 적임자라고 진언한다. 태사 澹台惠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김대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음은 金臺가 돌원숭이를 격파하는 장면이다.

貝州의 사나이 金臺가 원숭이를 격파하는데, 두 시간 동안 싸웠는데도 끝나지 않았다. 짐승은 기운이 점점 맹렬해지고 김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또 한 시간이 지나자 김대는 더욱 다급해졌다. 자고로 사람이 급하면 피가 생겨난다. 김대가 몸을 날려 세차게 쫓기자 돌원숭이도 위로 뛰어올랐다. 김대는 그 틈을 타서 주먹을 들어 돌원숭이의 머리 위를 향해 매섭게 내려쳤는데, 태산이 정수리를 압도한다는 권법으로 내려치니 크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가 이미 깨져서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일순간에 죽으니 김대의 손에 죽게 된 것이다.

(貝州好漢打這番猴, 打了兩個時辰還未打完. 畜類精神越旺, 金臺冷汗遍身. …又是一個時辰, 金臺急得很了. 自古說, 人急計生. 金臺飛身一縱, 那石猴也縱上來. 金臺趁勢提起拳頭照定石猴的琉璃頭上狠狠一下, 名爲泰山壓頂蓋將下來, 但聞之利利一聲, 琉璃頭已破, 落下地來, 嗚呼一命, 死在金臺之手了. 제38회)

安南國은 늘 宋나라를 위협하는 적대국이었는데, 그들은 石猴를 길러 송나라를 골려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야욕을 부렸던 것이다. 안남국의 돌원숭이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사람들과 싸울 때 눈알을 파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안남국왕은 송나라가 어떻게 이 원숭이를 처치하는가에 따라서 침략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김대가 원숭이를 죽여 버리는 바람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宋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어떻게든 송나라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中原을 탈취하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무사 郝龍을 보내어 송나라의 국력을 시험하게 된다.¹⁶⁾ 다음은 金臺가 郝龍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두 사람이 두 시진을 싸웠는데 승패가 나지 않았다. …楊元帥와 包拯은 金臺가 질까봐 우려되어 얼굴에 초조함을 드러냈다. 김대는 생각했다. “그의 재능은 원래 훌륭하지만, 오늘은 재수 없게 되었구나. 다른 권법은 그가 모두 깨뜨릴 수 있을 테니 아무래도 羅漢拳을 펼치면 어떨지 보자.” 생각을 정하고 나서 나한권을 펼쳤다. …郝龍은 何同의 문하에서 다른 권법은 거의 다 배웠지만 오로지 나한권은 하동이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했다. 이 때 김대가 나한권으로 가격하니 학룡이 막아 내려 해도 막을 수 없었다.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김대에게 감탄했다. ‘과연 능력이 고강하니 이 야기가 헛되이 전하지 않는구나.’ 막 보고 있는 사이에 김대가 왼손을 놔두고 오른손으로 가격하며 앞다리를 날려 학룡을 홀라당 넘어지게 하니 한참 동안 기어오르다가 일어나지 못했다. 김대가 그를 격파하러 가지 않고 계단 아래에 엎드리며 말했다. “폐하, 소신이 이겼사옵습니다.”

(二人打了兩個時辰, 各無勝敗. …楊元帥·包大人猶恐金臺敗了, 故而滿面著急. 金臺暗想: “他的本事原好, 今日必要倒霉的了. 別的拳頭他俱能破, 不免把那羅漢拳打將出去, 看他如何?” 主意已定, 羅漢拳來了. 郝龍在於何同名下, 別的拳頭多已學全, 單單只有羅漢拳何同不教, 郝龍不學. 此刻, 金臺打出羅漢拳來, 郝龍招架也招架不住, …看得眼花繚亂, 暗贊金臺: 果然本事高強, 話不虛傳. 正看之間, 只見金臺左手一擊, 右手一灑, 前腿一飛, 把那郝龍七歪八裂跌將下來, 爬了半晌還爬不起身. 金臺不去打他, 伏身階下, 口稱: “萬歲, 小臣取勝了.” 제57회)

金臺가 승리를 거머쥐고 나서 郝龍은 본래 송나라 백성임이 판명되어 王則의 반란군을 평정하는 군사로 편입되고 日本은 송나라에 대해 감탄하며 계속 조공을 바치기로 하며 돌아가게 된다.

이후 金臺는 兵部尚書와 平陽元帥라는 직함을 하사받고 반란을 일으킨 王則의 무리들을 평정할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왕칙에 대해 의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김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6) 日本은 郝龍을 보내어 송나라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金臺에게 패배하게 되고 학룡이 본래 송나라 백성임이 판명되어 王則의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 출정하게 되니 도리어 남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金臺는 생각했다. “끝났구나. 王則은 내 좋은 친구인데 어떻게 정벌하러 갈 것인가? 만약 병사를 받지 않는다면 황명을 위배하는 것이지.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만두자. 황명을 어기기 어려우니 걱정할 필요 없이 병사를 이끌고 貝州로 갔다가 기회를 보아 처리하면 되겠지.”

(金臺一想: “完了. 王則是我的好友, 如何前去征伐起來? 若不領兵, 違逆聖旨. 事在兩難, 如何處置嚇? 也罷. 難違君命, 不須憂愁, 且提兵到了 貝州見機而作便了.” 제57회)

金臺는 처음부터 王則과 싸울 생각이 없었지만 왕칙의 무리들이 교전하고자 하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 초반에는 張鸞이 도술을 부려서 100여 명의 장군을 포획하여 위기를 맞았지만 막판에는 王禪老祖가 말한 軒轅鏡과 兵書를 얻어 승진하게 된다.¹⁷⁾

송나라 진영에서는 徐天福이 공격하러 나왔고 반란군 진영에서는 작은 여우 요괴 胡永兒가 나와 30합을 싸웠다. 호영아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말 머리를 돌려 패주했다. 서천복이 놓아주지 않으려 쫓아가니 호영아가 바로 요술을 부리며 작은 조롱박을 꺼내어 몇 번 흔들면서 몇 마디 주문을 외우고 조롱박을 엮으니 수많은 황두가 쏟아져 나왔다. 삼시간에 수만 명의 병사가 밀물처럼 밀려들었는데, 봉두난발에 나체를 드러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어떤 이는 갈고랑이를 쓰고 어떤 이는 도끼를 쓰며 어떤 이는 도끼를 쓰고 어떤 이는 대도를 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천복을 에워쌌다. 金臺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말을 타고 칼을 들었다. 병서에 적혀 있었다. ‘요괴 병사를 만나면 이 보경을 공중에 두고 주문을 외워라.’…김대가 비결에 따라서 행하며 보경을 즉시 공중에 던지고 주문을 세 번 외웠다. 광채가 해를 가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덮으며 벼락이 연달아 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수많은 天兵과 天將들이 내려와서 요괴 병사들을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김대는 승리하여 진영으로 돌아가고 서천복은 다행히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아 술을 마시고 위로하여 포상했다.

17) 반란군 진영은 시종일관 요괴들의 도술에 의거하여 싸움을 진행하여 송나라 진영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막판에 金臺가 王禪老祖의 말을 기억해내고 寶鏡과 兵書를 찾아냄으로써 승패가 뒤바뀌게 되었으니 이는 천상계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宋營中徐天福殺出來, 叛營中小狐妖當前鬪了三十合, 胡永兒本事不高, 帶轉馬頭敗走. 徐將軍追趕不饒, 胡永兒就顯神通, 取一個小小葫蘆, 搖了幾搖, 口中念動真言, 就把葫蘆一倒, 倒出許多黃豆出來. 頃刻之間, 數萬兵馬如潮湧而來, 多是散發蓬頭, 赤身露體, 非常咆哮. 或用叉, 或用斧, 或拿棍子, 或拿大刀, 蜂擁而來, 竟把徐天福來圍住. 平陽元帥聞報, 登時上馬提刀. 兵書上面載明: 若遇妖兵, 可將此鏡祭在空中, 朗念: …金元帥照訣而行, 寶鏡登時丟在半空, 就將咒訣念了三遍. 但見光華蔽日, 瑞氣遮天, 霹靂交加, 飛電閃灼, 許多天兵天將到來, 趕得妖兵影蹤全無…金元帥得勝回營, 徐天福幸喜無傷, 飲酒犒賞. 제60회)

王則은 요술의 힘을 빌어서 한때는 승승장구했지만 金臺도 보경과 병서를 얻어 대항하게 되니¹⁸⁾ 요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흙 속으로 도망가고 만다. 이로 인해 왕칙은 반란군을 계속해서 결집할 수 없었고 자결을 선택하게 된다.

5. 金臺의 歸還

반란의 수괴 王則이 자결하고 나자 金臺는 어려움 없이 국난을 극복하게 되고 고향 貝州로 돌아갔는데, 京城에서 다음과 같은 조서가 내려온다.

갑자기 하루는 경성에서 조서가 내려왔다. 金臺를 安邦定國王으로 봉하고 일 년 쉬고 나서 다시 임조하여 알현하도록 하라. 아내는 萱堂으로 봉하고 공로를 세운 장사들은 都督으로 봉하라. 貝州의 문무관원 등이 모두 김대의 의견을 들었다. 흠차가 작별을 고하며 황제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모든 영웅들이 크게 기뻐하고 대단히 감사해 하며 藩王府는 매우 떠들썩했다. 하루는 홀연히 張其夫婦와 何其夫婦가 함께 왔다. 다들 하하 크게 웃으며 방안에 기쁨이 가득했다. 또 하루는 鄭千이 劉乃, 玉芙蓉, 蘇雲 어르신을 모시고 貝州로 와서 김대를 알현했다. 사람들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정권과 옥부용은 姑蘇에서 이미 혼인을 치렀다. 모든 영웅들

18) 金臺가 승리한 것은 그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으며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 있었음을 드러내는데, 이는 요괴들과 대항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불완전한 인간계를 위해 천상계는 영웅을 보조하게 되며 승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귀가하여 가문을 정리하고자 하여 김대에게 아뢰었다. 김대가 어찌 곤란해 했겠는가? 일일이 허가해 주었다. 즉시 이별할 사람은 이별하고 배웅할 사람은 배웅하며 각자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忽然一日, 京中來詔: 把金台封做安邦定國王了, 准他將息一年, 再來見駕. 誥封妻子萱堂, 追封故父宗廟, 那些有功將士封爲都督. 貝州文武官員等, 均聽金台主張. 欽差辭別, 一路回轉帝邦. 一眾英雄大悅, 謝天謝地, 藩王府內好生熱鬧. 一朝忽見張其夫婦, 何其夫婦一同到來. 大家哈哈大笑, 滿堂歡喜. 又一日鄭千同了劉乃·玉芙蓉·蘇雲老丈也到貝州, 同見藩王, 人人快活, 個個歡然. 鄭千與玉芙蓉在姑蘇已成花燭. 且說眾英雄都要回家整理門戶, 大家來告稟金千歲. 定國王爺豈有作難之理? 一一准許. 立刻別的別, 送的送, 各自分頭回轉故鄉. 제60회)

이처럼 金臺는 藩王에 책봉되고 장사들은 都督에 책봉되었다는 조서를 받고 함께 기뻐하다가 김대의 윤험을 받고 장사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말을 맺는다. 김대는 영웅적 행위로 인해 왕위에까지 오르지만 평화롭게 귀환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승천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¹⁹⁾

IV. 金臺와 영웅유형

金臺는 처음부터 끝까지 貝州의 好漢이자 소년영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의 영웅적 행위는 여러 차례의 특출한 무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김대와 함께 국가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500명의 영웅들은 金山에서 의형제를 맺은 이후로 500명 영웅이라는 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중에서 뛰어난 몇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김대와 특이한 영웅을 유형별을 분류하여 그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도록

19) 영웅소설의 결말은 대개 영웅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金臺와 영웅들의 귀환으로 끝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겠다.

1. 金臺-어린 영웅

金臺는 어린 나이부터 유명해져서 ‘어린 영웅’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었다.²⁰⁾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貝州의 金臺는 천하 곳곳마다 유명한 어린 영웅이었는데, 권법이 대단하고 재능도 훌륭하여 강철 장군이나 돌로 만들어진 사나이라고 해도 김대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무서워했다.

(貝州金臺四海到處聞名, 是個小輩英雄, 拳法利害, 本領又好, 憑你鐵將軍, 石好漢, 聞得金臺的名字, 盡是懼怕的. 제8회)

張其가 대답했다. “...우리 둘째의 재능은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마다 당신을 小霸王이라 부르고 명성이 이처럼 거대하니 오히려 이런 관공서의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다른 기회를 도모하여 나라를 평정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조상님들도 영예롭게 되고 자당 체면도 약간은 서게 될 거요.”

(張其答道: “...吾們二哥的本領是無人及得的, 人人多稱你小霸王, 名聲如此之大, 卻不該應吃這公門飯, 極可別圖機會, 作些定國安邦的事體, 祖宗也好榮耀榮耀, 就是令堂面上也有些威風.” 제8회)

金臺는 체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체제나 인륜을 수호하는 유형에 가까운 행동을 나타낸다.²¹⁾ 작품의 초반부터 어린 영웅이라는 별명이 많이 사용되고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김대의

20) 작품의 도입부에는 金臺의 비범성에 대한 묘사가 그다지 나오지 않았다가 제51회에서 야 그가 天巧星의 환생임을 설명하면서 천부적인 영웅이라 칭송하고 있다. 이 점은 그가 어릴 때부터 영웅으로 유명해진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1) 金臺가 죄를 지은 친구들을 체포하지 않고 악한 澹台豹를 응징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체제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하지만 결국 충신 그룹 楊元帥와 柴王 등의 도움으로 체제에 순응하여 만란군 王則의 무리를 정벌하러 가기 때문이다.

영웅성을 부각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작품의 서사는 영웅의 일대기라는 형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비범한 출생에 대한 묘사도 없고 죽음에 대한 묘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해도 전혀 무리는 없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영웅이었고 나중에는 국난을 극복한 영웅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그는 천부적인 영웅이 아니라 만들어진 영웅인 것처럼 보인다. 王禪老祖와 鬼谷仙師 등 영웅 메이커²²⁾들은 金臺에게 도움을 주고 국난을 극복하도록 인도하면서 영웅으로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2. 張其-指揮者型

張其의 부친은 金臺의 부친과 절친한 친구였고 장기는 김대와 좋은 친구 사이지만 金華府 沈太爺의 관선을 털은 강도이다. 장기는 검은 얼굴을 가졌고 대담하게도 관리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현상금으로 은자 1천 냥이 걸린 도적의 우두머리이다.

張其는 새까만 얼굴에 호방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모로 張飛와 비슷할 거라고 추측되지만 도적 무리를 이끌던 지휘자적인 인물로 金臺에게 체포되자 다른 무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張其는 허리를 굽히며 金臺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교유하던 형제이고 우리들의 부친도 인정이 친형제같이 두텁지만 沖塘 탈취 사건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 죄명을 논한다면 어찌 관용을 베풀 수 있겠는가? 관부에서 너에게 체포하도록 했으니 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네.”

(張其曲著腰向金臺道: “你吾多是相交的弟兄, 吾們的父親又是情同手足, 沖塘劫刼原是不該的, 若論罪名是豈可寬容? 官府著了你來拿捉, 伏乞

22) 영웅소설의 조력자들은 대개 초월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월적 존재들은 영웅을 더욱 영웅답게 만드는 인물들로 영웅이 고난을 겪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성장하도록 한다. 이 작품에서는 金臺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면서 王則의 편에 서지 않고 송나라의 국난을 극복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영웅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你要慈悲些些.” 제8회)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張其는 대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굽힐 수 있는 인물이었다. 계속해서 장기는 金臺가 사내 대장부로서 할 것이 없어 강도질을 하느냐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꾸하고 있다.

張其가 듣고 나서 金臺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거친 사람들이라 남의 재산을 빼앗아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예절은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네.”
(張其聽說, 叫聲二哥道: “吾們是粗俗的人, 劫了人家的財帛來快活快活, 故而禮制一點無有的.” 제8회)

이처럼 도덕심도 수치심도 없다고 했던 張其는 도적들을 이끌고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金臺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말에 금방 수궁하고 만다. 장기는 김대와 조우하고 나서야 도적질에서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3. 華雲龍-智略家型

본래 도적 무리였지만 그중에서 비교적 치밀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일행들의 허점을 잘 짚어내는 인물이 있다. 華雲龍은 浦二가 횡설수설하는 말속에서 핵심을 추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華雲龍들은 金臺가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당황해하며 노를 들어 나는 듯이 달아나다가 으스스한 곳에 도착했다. 배를 정박하고 浦大郎이 형제를 불렀다. “김대가 어떻게 온다는 거냐? 너와 배에서 무슨 말을 나눴느냐?” 長江浦二가 매우 초조해하며 오늘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했다. 그의 외관을 사랑해서 그에게 비역질하려고 했었는데 화를 낼지 어찌 알았으리오. 지금 형이 나에게 묻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되었다. 일부러 머리를 두 번 흔들며 말했다. “나는 배에서 내렸고 그는 이미 선창 내에 있었어요. 그를 잘 모르겠어요.” 포대가 말했다. “설마 너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은 거냐?” 포이가 말했다. “뭘 묻지 않았다니요! 그는 金龍이라

고 했어요.” 화운룡이 말했다. “그에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물은 적은 있는가?”

(華雲龍們, 聞說金臺來捉, 大家急得慌亂, 開起八槳櫓, 如飛而逃, 到了一個幽僻之所. 將停泊, 浦大郎就叫兄弟道: “這個金臺怎麼樣來的? 與你在船講什麼說話?” 長江浦二好不心焦, 大悔今朝自己不好, 愛他的人品, 希圖他的後庭花, 那知便生出氣來. 現在哥哥問吾, 如何說法? 有了, 便假意將頭搖兩搖道: “吾下船來, 他已先在倉內了. 倒是不認識他.” 浦大道: “難道你不問他名字的麼?” 浦二道: “什麼不問! 他說叫金龍.” 華雲龍說: “可曾問他做什麼生意的呢?” 제8회)

浦大는 浦二에게 단순히 金臺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자 질문을 던졌다면 華雲龍은 상인으로 가장한 김대가 정확히 무슨 장사를 하는지 물었던 것이다.²³⁾ 따라서 화운룡은 포이에게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고 시도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鄭千-行動家型

張其와 대조적으로 鄭千은 하얀 얼굴을 가졌지만 白面書生처럼 얌전한 성격이 아니라 매우 활발한 행동가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가 활약한 장면 중의 하나를 보기로 하자.

하인들이 모두 말했다. “金臺를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김대를 잡아라!” 김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두 손을 가볍게 하나씩 벌렸는데, 어떤 사람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뒹굴었다가 몸을 일으켰지만 또 엎어졌다. 갑자기 鄭千이 크게 소리치더니 뒤이어 나와서 말했다. “큰형, 셋째 아우, 닭을 죽이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소! 내가 이놈들을 하나하나씩 때려죽이겠소.” 그가 몽둥

23) 이 작품의 영웅은 도적 출신에서 변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했으므로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고 지략이 뛰어나거나 사색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거친 무리들로 구성되어있지만 忠心を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하기에 華雲龍은 이들 무리 중에서 비교적 치밀한 두뇌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들고 걸어가니 60여 명의 하인들은 김대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김대한테 떨어져서 張其와 鄭千을 잡으러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家人們多道: “捉金臺!” 但見一眾豪奴趕上來, 同聲多喊: “拿捉金臺!” 金臺若無其事, 兩手輕輕, 一個一個拉開, 有的拉得身子多立不停了, 有的跌倒在地, 爬起身來又跌倒了. 忽又聽見鄭千大喊, 隨後出來道: “大哥, 三弟, 割雞焉用牛刀! 待俺來把這班狗奴才一個一個的打死便了.” 但見他手提一條棍子灑步而來, 那六十多個豪奴上不得金臺手, 只好丟開金臺來捉張其·鄭千, 便一齊蜂擁上來. 제9회)

鄭千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인물로 호기로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지만 좌충우돌하는 면을 보이는 영웅이다. 그가 비록 처음에는 관부의 돈을 탈취하는 나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먹고 살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

5. 鮑千金－直觀型

鮑千金은 海洋大盜로 알려진 사람으로²⁴⁾ 성격이 대단히 거칠어서 그 지역 객점에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외모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金臺가 바라보니 이 강도는 품격이 뛰어나지만 전혀 도리가 없고 한 측면은 흉한 관상으로 입은 커다랗고 네모난 얼굴에 사자코를 가졌고 키는 크고 뚱뚱한 체격인데 턱수염을 길렀다. 산적이 아니라 반드시 해적일 것이며 선량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金臺抬眼看這強徒, 品格高強, 全無道理, 一面凶相, 口闊方腮, 獅子鼻頭, 身體體胖, 兩腮胡鬚. 非是山林強盜, 定是海面強徒, 必不是循良之人. 제23회)

鮑千金은 객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가려 했다가 金臺와 싸우게 되지만 한

24) 鮑千金은 清代 협의소설 『綠牡丹』의 해적 鮑自安과 비견되는 인물인데, 포자안과 마찬가지로 도적질에서 손을 털고 金臺의 영웅 무리에 합류한다.

번에 나가떨어지고 김대의 말투와 출신을 알고 나서 그가 貝州의 김대임을 알아차린다.

鮑千金이 말했다. “하하, 영웅은 저를 속이지 마시오. 저는 여러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소. 貝州의 김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작은 몸매로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으며 용모가 수려하다고요. 만약 김 호걸이라면 저는 문하에 투신하고자 합니다. 형제들 몇 명도 있어서 모두 패주로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호걸을 만나니 정말 삼생의 행운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기쁩니다.”

(千金道: “哈哈, 英雄休得瞞吾. 小可聽得衆人傳說, 貝州金臺不長不短, 小小身材, 年紀不到二十歲, 眉清目秀的. 若果是金好漢, 吾情願拜投門下, 還有幾個弟兄, 多是幾番要到貝州. 今逢好漢, 真是三生之幸. 吾等人人心快.” 제24회)

鮑千金은 바다를 주름잡는 강도였지만 金臺의 소문을 듣고 흠모했다가 그의 문하에 기꺼이 투신하려 한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눈이 있듯이 포천금은 직관적으로 김대를 알아보고 개심하여 김대의 편에 합류한 인물인 것이다.

V. 金臺와 대적한 악인들

金臺와 대립하면서 악덕을 선명하게 표명하고 있어 김대의 활약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게 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본래는 선량했던 자도 있다. 김대와 악인들의 대립 관계를 자세히 살펴 보면 사소한 갈등에서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澹台豹: 잔혹한 공자

작품 중에서 金臺와 표면적으로 격렬한 대립 관계를 이루는 인물이 澹台豹이다. 그는 부친 澹台惠의 힘을 믿고 권력을 남용하는 악인이다. 담태표는

주로 여인들을 약탈하는 고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 묘사된 장면을 보자.

사람들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그의 얼굴을 보면 뉘이 나가려고 해서 두려워했다. 그는 악마 七煞星과 마찬가지로였으므로 그와 감히 충돌하는 사람이 없었다. 揚州 府縣의 관원들까지도 모두 그를 받들어주었다.

(人人聞了他的名字, 多叫頭里疼的, 見了他的面就要落魂的, 多怕他. 他像個凶神七煞星一般, 故而無人敢沖撞他的, 那些府縣官員是多奉承他的. 제8회)

澹台豹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金臺와 대적하자마자 아이없이 금방 죽어버린다.²⁵⁾ 그는 비겁하게도 60여 명의 하인들을 대동하여 김대와 대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의 대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담태표는 김대와 직접 몸으로 부딪쳐 가면서 상대했으니 가장 낮은 단계의 갈등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2. 澹台惠: 과욕을 부린 재상

澹台惠는 ‘萬人之上, 一人之下’라는 재상으로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인데, 아들 澹台豹를 죽인 金臺에게 이를 갈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죽게 만들려고 한다. 담태혜는 국난을 극복한 공적을 세운 김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주한다.

澹台惠가 말했다. “신은 金臺가 비록 공이 있지만 결국 살인죄를 상쇄할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폐하께서는 그를 八百禁軍의 교관으로 봉하십시오. 공과 죄가 공평하지 않으면 국법이 바르게 되지 않사옵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를 모방하게 될 우려가 있사오며 국가대사를 처리하기

25) 金臺와 적대 관계를 이루는 악인 중에 몸싸움을 벌인 경우는 澹台豹가 처음이다. 김대가 막 세상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므로 경험 부족도 있었겠지만 不義를 보면 달려드는 다혈질의 俠義人物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렵게 될 것이옵니다.”

(澹台惠道: “臣思金臺雖只有功, 到底抵銷不來迷天大罪, 聖上封他爲八百禁軍教頭, 功罪未平, 國法不正, 尤恐日後他人效此爲尤, 國家大事難以辦理了.” 제38회)

게다가 澹台惠는 金臺의 무리가 많으므로 개명을 시켜 3년 동안 변경수비군을 담당시켰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다시 관직을 봉하자고 주장한다. 김대가 자신의 주장대로 充軍하게 되자 담태혜는 황제의 성지를 조작하여 해치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包公²⁶⁾이 성지를 받들고 황궁의 정문을 나와 관저로 돌아왔다. 즉시 영을 전달하여 감옥 안에서 澹台惠를 내보내고 옷을 벗기고 포승줄로 묶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올라가도 길이 없고 땅속을 뚫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상황이다. 포공이 서쪽 교외로 압송하니 온 도시가 진동하며 백성들이 모두 와서 구경했다. 午時 三刻이 되자 참수하여 간신의 몸과 머리가 두 곳으로 나뉘었다.

(包爺領旨, 退出午門, 回轉府第. 登時傳令, 天牢內提出澹台惠, 洗剝衣衫, 捆綁起來. 這叫上天無路, 入地難鑽. 包公押赴西郊, 轟動滿城百姓多來觀看. 到午時三刻開刀, 奸臣身首兩處. 제51회)

澹台惠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金臺를 죽이려다 無所不爲의 권한을 휘두르는 월권 행위를 저지르지만 柴王²⁷⁾의 측근에게 발견되고 만다. 시왕은 김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가짜 성지를 증거물로 입수하여 황제를 알현해서 담태혜의 죄과를 치르게 만들었다. 이처럼 과욕의 대가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따라서 담태혜는 김대와 직접 싸우

26) 여기서 包公은 宋나라 淸官의 대표자 包拯을 가리킨다. 청렴결백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인물로 영웅 金臺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적대자 澹台惠를 공식적으로 처단해 주고 있다.

27) 柴王은 명칭에서 시사하듯이 그는 金臺가 소년영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뿔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가 국가의 영웅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인물들의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암암리에 김대를 살해하려 했고 황제를 사칭하기까지 했으니 갈등 상황을 증폭시켰다고 봐야 한다.

3. 王則: 미혹된 악한

작품 중에서 金臺와 대비되는 인물로 王則이 있다. 그는 포졸 중의 우두머리로 단정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김대가 張其와 鄭千 등을 잡지 않으려고 가짜 강도 계획을 세운 것도 금방 알아챈던 인물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蛋僧과 요괴 등에게 홀려서 왕 노릇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그야말로 괴이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음은 왕칙의 인물됨을 나타난 문장이다.

王則이 말했다. “김 형제, 張其의 무리가 매우 많고 지명수배 문서는 매우 엄밀합니다. 체포하게 되면 좋겠지만 매우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기를 체포하려면 나조차도 주위를 압도하게 될 겁니다.”

(王則說: “金兄弟, 張其黨甚多, 通緝文書嚴緊得很, 拿住了是有好處, 總總費心, 但求捉到張其, 吾就有八面威風了.” 제6회)

그는 처음에는 대단히 성실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 후반부가 되면서 18세 쯤 되는 어리고 예쁜 요녀 永兒에게 홀려서 宋나라를 전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되고 왕이라 칭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다음은 王則이 요녀에게 홀려서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장면이다.

王則이 듣고 나서 웃음을 머금고 생각했다. “나는 貝州에서 포졸이어서 도적을 체포하기만 했고 어찌 천자가 될 생각이나 했던가? 이것은 천하의 주인이 될 운명이 정해진 까닭이다. 聖姑姑 모녀 두 사람을 만나면서 蛋僧·左躡·張鸞 등의 도움을 받고 金山에 영웅과 장사들이 더 있고 더욱이 동생 金臺가 있으니 안팎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왕칙이 그 생각을 하자 봄바람이 온 얼굴에 불어온 듯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聖姑姑는 五鬼에게 안주를 가져 오게 하고 산해진미를 잘 차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저녁에 왕칙은 永兒와 동침하며 여러 차례 환락을 경험했다.

(王則聽說, 含笑不說, 想道: “我在貝州做個馬快, 無非捕盜捉賊, 何曾

想爲天子? 這是命中該做山河之主, 故而遇著聖姑姑母女二人, 蛋僧·左蹠·張鸞等扶助, 金山還有英雄將士, 更有那賢弟金臺大丈夫, 正是外有幫而內有助。”王則想到其間, 春風滿面, 笑個不住, 聖姑姑著五鬼去搬肴運菜, 佳肴美酒堂前擺好, 大家共吃. 晚間, 王則與永兒同睡, 幾次鸞交歡樂. 제54회)

金臺는 王則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지만 그는 김대의 말을 듣지 않고 여우귀신 聖姑姑, 左蹠, 도사 張鸞, 蛋子頭和尚, 胡永兒 등에게 홀려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왕칙은 8월 15일이라는 길일을 택하여 왕위에 등극하고 국호를 慶和라고 선포한다. 게다가 王則은 金臺의 항복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몇 번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패전의 조짐을 보이자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王則은 성에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홀연히 나쁜 소식을 듣게 되자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며 참언에 잘못해서 흘렸음을 알았다. 옛날을 회상해보니 金臺와 어릴 때부터 사귀었고 나에게 군사를 물리라고 했지만 기어이 듣지 않았지. 그와 교전하면서 지금까지 싸웠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진실로 성을 공격하게 되겠구나. 무능한 장군들 몇 명이 다가와서 소리쳤다. “주공, 빨리 투항하는 것만 못하나이다. 아마 金臺가 정리로 봐줄 것이옵니다.” 왕칙이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예전에 투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나는 세 살짜리 아이가 아니다.” 그러더니 靑鋒劍을 뽑아서 즉시 자결하니 목숨이 끊어졌도다.

(王則在城專等喜信, 忽聞凶信, 仰天長歎, 方知誤聽讒言. 回想從前, 與金臺自幼相交, 勸我罷兵, 偏偏不允. 與他交鋒, 殺到今朝, 如此樣子, 諒必要攻城的了. 幾個無能將官走近前來, 叫聲: “主公, 不如及早投降了罷, 或者金元帥還肯推情.” 王則道: “說那裏話來? 從前不肯投降, 如今這般光景有何面目? 我非三歲嬰孩.” 便拔出靑鋒劍來, 登時自刎, 一命嗚呼. 제60회)

王則은 요물들에게 미혹되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왕이라 칭했다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지만 오히려 金臺와 친했던 교분을 생각하며 자결하고 만다. 그는 본래부터 본성이 좋지 않은 악인이 아니었고 잠시 헛된 꿈을 꾸었던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와 나중에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되었으므로 선인에서 악인으로 변화한 입체적인 악인 유형²⁸⁾에 해당된다. 또한 왕칙은 전쟁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서 김대에게 개인적 義理와 국가적 忠情 사이에서 변민하게 만들었으므로 가장 심화된 갈등상황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VI. 나오는 말

『金臺全傳』은 淸나라 말기에 창작된 작자미상의 俠義小說이다. 가장 오래된 판본이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1881년에 출판된 石印本이다. 우리나라 국민대학교에 소장된 희귀판본과 비교해보면 판형과 문자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작품의 서사구조는 金臺의 유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의 등장, 결연, 시련, 입궁, 귀환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김대의 영웅성이 점점 확대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金臺는 天巧星의 환생으로 소년영웅의 기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기녀와 연분을 맺는 파격적인 애정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의리를 중시하여 친구들과 함께 유랑하다가 악인을 죽이게 되지만 결국 宋나라를 위해 세 차례나 공을 세움으로써 安邦定國王으로 봉해진다.

金臺와 더불어 활약한 500명의 영웅 중에서 독특한 인물 유형은 指揮者型, 智略家型, 行動家型, 直觀型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은 金山에서 의형제를 맺은 이후 국난 극복을 위해 뭉쳐진 인물들로 거칠고 호방한 성격을 가졌지만 반란군을 제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澹台豹, 澹台惠, 王則은 金臺와 적대한 악인들로 그의 영웅성을 돋보이게

28) 입체적 인물은 현대소설에 주로 등장하지만 王則의 경우는 선인에서 악인으로 변화했기에 입체적인 유형에 해당된다.

하는 장치이다. 김대는 악인들과 사소한 개인적 갈등으로부터 국난에 이르기까지 점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참고 문헌

- 佚名, 『金臺全傳』, 春風文藝出版社, 1997.
- 馬國星, 『浪遊、難邦與打播--試論金台全傳中的三個母題』, 遼寧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 王立·馬國星, 「金台全傳打播母題、狂歡化色彩及佛經來源」,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
- 褚半農, 「明清吳語小說難詞例解」, 『明清小說研究』, 2008.
- 石三夫, 『重到潘家園』, 西湖, 2006.
-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0.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 이민희, 『역사영웅서사문학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우한용,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 金明信, 「稀貴本 中國 通俗小說에 대한 소개-한국 소장본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0집, 2013.
- _____, 「낙선재본 『충렬협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 _____,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 _____, 「俠義愛情小說의 淵源과 範疇」, 『中國語文論叢』 제14집, 1998.
- 安圻洙, 「영웅소설의 지향가치와 실현방식에 대한 연구」, 『어문론집』 30, 2002.
-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2 역사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ABSTRACT

A Study on *Jin Tai Quan Zhuan* (金臺全傳): A Narration in the Form of a Xylographic Book

Kim, Myung-Sin

This article studies *The Complete Story of JinTai*(金臺全傳), a Korean and Chinese xylographic book, and wishes to makes a case for the value of this work.

The Complete Story of JinTai, is an anonymous Xia-Yi (俠義) novel from the late Qing Dynasty. The oldest edition is at Nanjing Rare Book Library. This work was published in 1881 when Emperor Guangxu (光緒) ruled China. Currently, a copy of this book is at the Kookmin University Rare Book Library, however, it is somewhat different in form from that in the Nanjing Library. But it is almost the same story.

The Complete Story of JinTai narratives the life story of the hero, Jintai (金臺). Jintai's appearance, alliance, ordeal, contribution, and return proceed sequentially, thus, the story gradually explicates Jintai's heroic aspects.

Jintai is a young hero. Exceptionally, he married an official dancing girl. He values honor, hangs out with friends, slays a wicked villain, to the defense of the country, and eventually becomes a king.

The hero of more than 500 is categorized as conductor, strategist, activist, intuitive type. They are from Geumsan Mountain, took a pledge of brotherhood, and try to resolve a national crisis.

The remarkable Jintai fights wicked enemies and does battle with the villains in many conflicts.

Key Words

Jintaiquanzhuan, Jintai, xylographic book, hero, narration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